

## [ 종합·해설 ]

초반 경선 4연전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주고 받은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추석 연휴 이후 펼쳐지는 광주·전남(29일), 부산·경남(30일) 경선 결과가 전체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추석후 4연전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선 신당 경선 판도에 있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신당 지지층이 우세한 곳이다. 민주당과 '호남광주'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지역으로서 전국적인 경선 표심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영남의 한 축인 부산·경남 역시 신당의 후보가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확인받는 겸증 무대로 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정동영, 광주·부산서 대세 굳히기

범여권 적자 후보 강조 지지 당부



제주·울산·강원·충북 등 초반 경선 4연전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기를 잡은 정동영 후보는 광주·전남, 부산·경남 경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 대세를 굳힌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우선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상주, 범여권 적자 후보 입장을 강조하며 자리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만 잠시 고양인 전북 순창과 전주를 다녀온 계획이다. 정 후보 층에서는 광주·전남 경선의 핵심 포인트는 2위 후보와의 표 차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정 후보가 오래전부터 특별 관리한 지역이어서 타 후보보다 조직력 면에서 월등한 데다 양협일, 우윤근, 염동연, 주승용, 이영호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강력하다.

정 후보 층은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전국적 선거를 치르면서 부산·경남 조직도 탄탄히 다졌다. 주장이다.

손학규, 광주·전남 을인… 역전 발판

“대선 필승카드 선택 해 달라” 호소



초반 경선 4연전에서 정 후보로부터 일격을 당한 손학규 후보는 광주·전남 경선에 을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후보 캠프는 광주·전남 지역의 경선에서 실패한다면 이는 부산·경남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실상 침몰할 수도 있다. 는 위기감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단 손 후보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세차례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 민심에 ‘대선 필승카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이해찬 후보는 참여정부의 이미지를 씻을 수 없어 결선에 내보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은 광주·전남 민심이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손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온도가 타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선거인단이 경선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폭등, 승리를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도 나타내고 있다.

이해찬, 후보 단일화 기반 승기 잡기

노사모·참평포럼 등 조직력에 기대



이해찬 후보는 지난 경선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자체 평가 함께 광주·전남 경선에서 적어도 2위, 부산·경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친노 후보단일화를 바탕으로 한 승기를 잡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은 노무현 대통령 및 참여정부 지지율이 타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과를 모두 승계한 이 후보가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력에서는 정 후보에 밀리지만 노사모 및 참평포럼 등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 후보와 참여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정 후보를 겨냥해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다’는 신의론도 내세울 계획이다. 여기에 부산·경남은 노 대통령의 고향이자 그 어느 지역보다 친노 지지층이 두껍다는 점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방미

널프레스 클럽 등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기 전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경선 판도 가늠 분수령 “추석 후 빅매치 잡아라”

제주·울산·강원·충북



등 초반 경선 4연전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기를 잡은 정동영 후보는 광주·전남, 부산·경남 경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 대세를 굳힌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우선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상주, 범여권 적자 후보 입장을 강조하며 자리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만 잠시 고양인 전북 순창과 전주를 다녀온 계획이다. 정 후보 층에서는 광주·전남 경선의 핵심 포인트는 2위 후보와의 표 차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정 후보가 오래전부터 특별 관리한 지역이어서 타 후보보다 조직력 면에서 월등한 데다 양협일, 우윤근, 염동연, 주승용, 이영호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강력하다.

정 후보 층은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전국적 선거를 치르면서 부산·경남 조직도 탄탄히 다졌다. 주장이다.

## 신당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비상

TF 구성·조직 총가동 젊은층 집중 공략

대통합민주신당이 17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면서 각 주자 진영별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모바일 투표’는 한 표당 오프라인 투표 한 표와 같은 효율성을 발휘, 모집 규모에 따라 막판에 경선판도를 뒤흔들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캠프별로 20~30대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며 모바일 선거인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투표는

본경선 종반부인 10월 4~14일 네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손 캠프는 모바일 선거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에서 여론조사상 지지도 1위의 위력을 재확인, 조직표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민심의 나침반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며 단단히 베르고 있는 것.

반면 4연전에서 종합 1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한 정동영 후보는 약점 수준을 차지 모바일 투표가 판세를 뒤흔들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선

거에서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하자는 태세이다. 지지조직인 ‘정통들’을 총가동해 젊은 층의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해찬 후보측은 모바일 투표에서도 ‘친노 일파’ 효과가 적지 않게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참여정부 지지층 등 친노 진영이 젊은 층에 많이 포진돼 있어 젊은 층의 표심이 중요한 모바일 투표에서 승기를 잡게 될 것’이라며 ‘개혁성향의 젊은 층은 총집중 탓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성민 “대권 도전 하겠다”



장성민 전 의원이 17일 “행복한 국민, 부강한 국가, 세계속 강대국으로 뻗어가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공식 출마선언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할 예정이다.

고흥 출신인 장 전 의원은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20일부터 출판기념회 못한다

선관위, 후보 이메일·전화도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90일전인 오는 20일부터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됨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이메일 발송·전화·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한다. /연합뉴스

물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 역시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정당의 중앙당은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개시직전인 11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70회 이내에 서만 할 수 있다.

동·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마술을 통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전합니다.

마술을 통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전합니다